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3.12.(제9호)

# 맞벌이 부부의 기타연장보육 이용 현황과 과제\*

서상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아동보육정책팀

[관련 분야 재단 연구 실적]

서울시 기타연장보육 현황조사 및 정책과제(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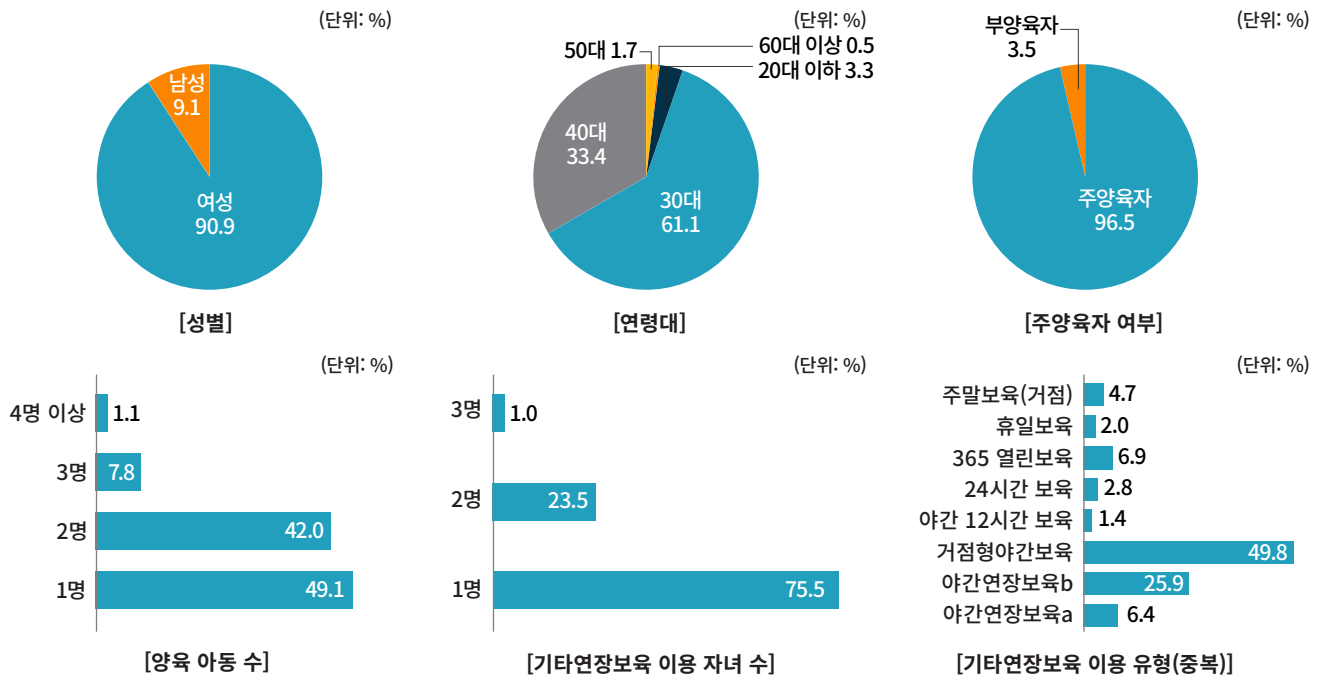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20)

맞벌이 가구 영유아 자녀양육 실태와 틈새돌봄 지원 방안 연구(2018)

서울시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틈새돌봄지원, 양육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연장보육제도를 운영해 왔다. 연장보육은 평일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기본연장보육 이외 「야간연장보육(a.05:30~07:30, b.19:30~24:00)», 야간12시간보육(19:30~07:30), 24시간보육(00:00~24:00(평일만)), 새벽보육(00:00~07:30), 거점형 야간연장보육(16:00~22:00), 휴일보육(09:00~18:00(일·공휴일)), 주말보육(09:00~18:00(토·일요일))과 같은 기타연장보육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수요자의 30%~40%는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이 실제 필요시간보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번 호 여성가족정책 리뷰에서는 특히 자녀양육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맞춰 기타연장보육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 □ 서울시 기타연장보육 현황조사 및 정책과제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서울시 기타연장보육 이용 0세~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양육자 821명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3년 수행한 「서울시 기타연장보육 현황조사 및 정책과제」(서상희, 이주리, 2023)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중 맞벌이 부부 821사례 재분석함.

## 맞벌이 부부의 기타연장보육 이용 현황

### ○ 기타연장보육 유형별 이용 현황

- 조사에 참여한 맞벌이 부부는 야간연장(거점형 포함)보육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야간연장(거점형 포함)보육 이용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이하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분포하고 있어,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서비스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야간연장(거점형 포함)보육 이용 양육자의 경우, 3인 가구 중위소득 150%(2023년 기준 6,652,224원) 이상의 평균소득 가구가 약 53.7%임. 중위소득 150% 초과 시, 공공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가 시간당 11,080원 ~ 14,4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야간연장보육 이용은 돌봄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365열린보육 이용자 역시 평균 가구소득이 101만원부터 1000만원 초과 사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또한, 약 57.6%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150% 이상으로, 맞벌이 부부의 돌봄비용 절감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음.

표 1 | 월평균 가구소득과 기타연장보육 이용 유형

(단위: 가구, %)

소득	기타연장보육 유형	야간 연장a	야간 연장b	거점형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365 열린	휴일	주말	계
①100만원 이하		0	2	2	0	0	0	0	0	4
②101만원~200만원 이하		0	4	8	1	1	2	0	1	17
③201만원~300만원 이하		2	15	19	3	5	6	4	3	57
④301만원~400만원 이하		10	21	44	3	3	5	0	6	92
⑤401만원~500만원 이하		13	38	72	1	3	9	2	6	144
⑥501만원~600만원 이하		5	40	69	3	5	6	2	9	139
⑦601만원~700만원 이하		13	29	72	1	2	8	5	6	136
⑧701만원~800만원 이하		9	30	66	1	0	8	3	3	120
⑨801만원~900만원 이하		6	26	39	0	1	4	0	4	80
⑩901만원~1,000만원 이하		1	16	35	0	1	5	0	3	61
⑪1,000만원 이상		2	26	49	0	6	13	3	4	103
계		61	247	475	13	27	66	19	45	953
비율		6.4	25.9	49.9	1.4	2.8	6.9	2.0	4.7	100.0

주: 기타연장보육 이용, 중복응답

### ○ 기타연장보육 이용자 특성

- 기타연장보육 이용 아동 연령은 0세 ~ 7세까지로, 소수이긴 하나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을 포괄하고 있음. 2세~4세 구간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으로 연령별 비슷하게 분포하여 전체의 63%였음.

표 2 | 양육 아동의 연령별 기타연장보육 이용 분포

(단위: 명, %)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만 7세	계
응답수	6	77	170	179	168	122	96	3	821
비율	0.7	9.4	20.7	21.8	20.5	14.9	11.7	0.3	100.0

## 맞벌이 부부의 기타연장보육 이용 현황과 과제

- 기타연장보육 이용 시작 시기는 만1세부터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31.3%), 다음으로 만2세(21.1%), 만3세(17.4%), 만4세이상(15.3%), 12개월 미만(14.9%) 순이었음.

**표 3 | 기타연장보육 이용 시작 시기**

(단위: 명, %)

구분	12개월 미만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4세 이상	계
응답수	122	257	173	143	126	821
비율	14.9	31.3	21.1	17.4	15.3	100.0

- 응답자의 95.4%가 '일' 때문에 기타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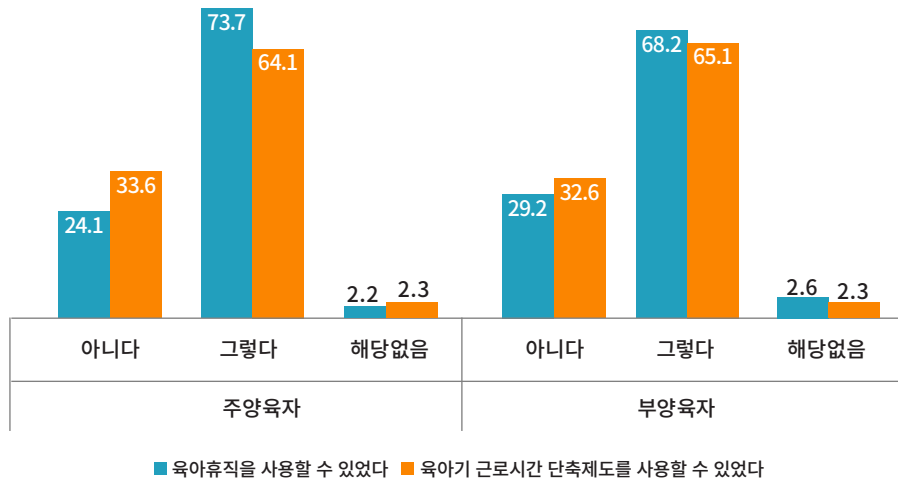
**표 4 | 기타연장보육 이용 사유(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생계를 위한 일 때문에	구직활동 또는 학습 때문에	본인 건강 문제로	다른 가족 돌봄 때문에	기타
응답수	783	35	28	41	10
비율	95.4	4.3	3.4	5.0	1.2

- 조사에 참여한 주양육자의 73.7%, 부양육자의 68.2%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고, 주양육자의 64.1%, 부양육자의 65.1%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양육자가 직장내 일생활 균형지원제도와 기타연장보육 이용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단위: %)



**그림 1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경험**

- 기타연장보육 이용 횟수는 주 5회이상 이용이 42.9%, 주 3~4회 이용이 25.1%로 68%가 주중에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함.

**표 5 | 기타연장보육 이용 횟수**

(단위: 명, %)

구분	주 5회이상	주3-4회정도	주1-2회정도	격주1회정도	월1회정도	기타
응답수	352	206	146	38	44	35
비율	42.9	25.1	17.8	4.6	5.4	4.2

## 기타연장보육 이용의 효과

### ○ 양육자가 느끼는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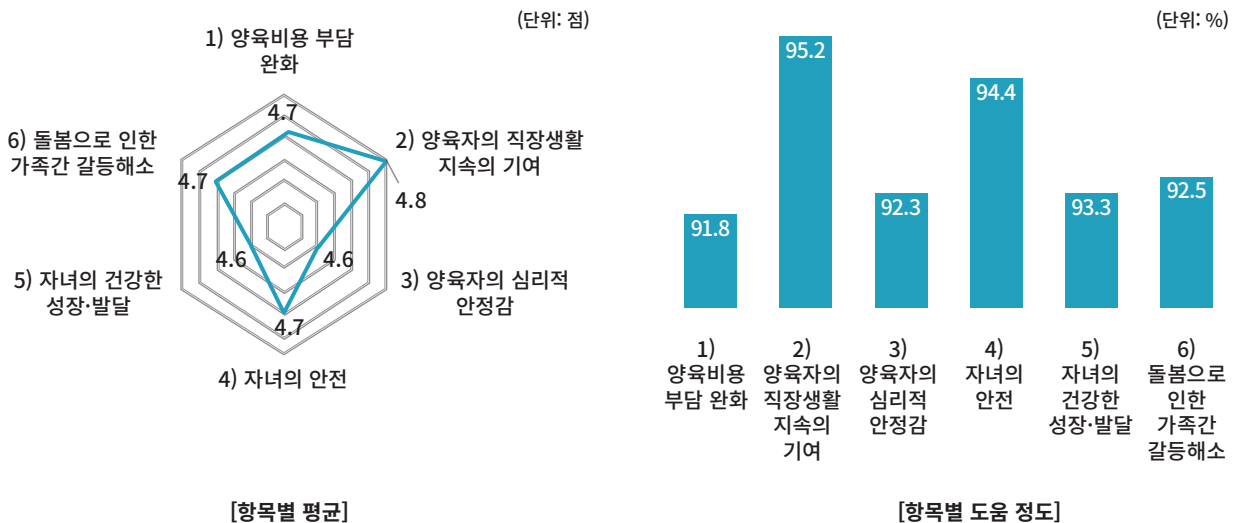
- 응답자의 81.6%가 기타연장보육이 직장생활 지속에 매우 도움 된다고 응답했으며, 양육비용 부담완화(75.2%), 자녀의 안전(74.8%), 양육자의 심리적 안정감(72.2%), 돌봄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해소(71.1%)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매우 도움 된다고 응답함.

[표 6] 기타연장보육 서비스의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도움 됨	대체로 도움 됨	보통	대체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1) 양육비용 부담 완화	응답수	617	136	38	8	7
	비율	75.2	16.6	4.6	1.0	0.9
2) 양육자의 직장생활 지속에 기여	응답수	670	112	21	6	4
	비율	81.6	13.6	2.6	0.7	0.5
3) 양육자의 심리적 안정감	응답수	593	164	47	9	7
	비율	72.2	20.0	5.7	1.1	0.9
4) 자녀의 안전	응답수	614	161	34	4	5
	비율	74.8	19.6	4.1	0.5	0.6
5)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	응답수	546	211	49	5	7
	비율	66.5	25.7	6.0	0.6	0.9
6) 돌봄으로 인한 가족간 갈등 해소	응답수	589	171	36	5	4
	비율	71.7	20.8	4.4	0.6	0.5

- 5점척도 측정 점수 평균값은, 5점 만점에 4.8점으로, 매우 높은 정도로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데 도움받고 있는 것을 확인함. 양육비용 부담 완화, 자녀 안전, 돌봄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해소 역시 평균 4.7점으로 기타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의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2]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경험

○ 기타연장보육 이용 전후, 퇴직 및 이직 경험

- 기타연장보육 이용 전과 비교해 이용 후, 이직율과 퇴사율이 모두 감소함. 이직 감소율은 60.0% ~ 100.0%였고, 퇴사 감소율은 33.3% ~ 100.0%였음.

표 71 기타연장보육 서비스의 효과: 이직과 퇴사의 감소

(단위: 명, %)

기타연장보육유형 (중복응답)	(주양육자) 자녀 돌봄 때문에 직업을 바꾸거나 이직했다			(주양육자) 자녀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용 전(명)	이용 후(명)	감소(%)	이용 전(명)	이용 후(명)	감소(%)
야간연장보육a 05:30 ~ 07:30	13	5	61.5	9	1	88.9
야간연장보육b 19:30 ~ 24:00	48	9	81.3	41	5	87.8
거점형야간보육 16:00 ~ 22:00	113	29	74.3	91	13	85.7
야간12시간보육 19:30 ~ 07:30	1	0	100.0	2	0	100.0
24시간보육 00:00 ~ 24:00 (평일만)	2	0	100.0	3	2	33.3
365열린보육 00:00 ~ 24:00	7	1	85.7	5	0	100.0
휴일보육 09:00 ~ 18:00 (일·공휴일)	5	2	60.0	2	1	50.0
주말보육(거점) 09:00 ~ 18:00 (토·일요일)	10	3	70.0	11	1	90.9

기타연장보육 접근성 및 질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 지정 야간연장(거점형 야간연장) 어린이집 모니터링

- 2022년 말 기준, 서울시 야간연장보육 지정기관(특수보육 미지정 어린이집 특수보육 미포함)은 1,998개소 인데 반해, 야간연장보육 실적이 있는 어린이집은 787개소로 39.8%만 운영됨. 거점형 야간연장보육 역시 지정기관 270개소 중 실제 운영한 어린이집은 182개소로 67.4%만 운영됨.

→ 기타연장보육 이용을 원하는 양육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지정받은 야간연장(거점형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곳에 한하여 지정할 것을 제안함.

○ 영유아 성장·발달을 고려한 적정 프로그램 운영 확산

- 야간 또는 휴일에 이루어지는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맞춰 야간 또는 휴일 보육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간 기타연장보육 보육 질 차이 완화를 위해 우수 어린이집 사례 공유와 적정 프로그램 운영 확산을 제안함.

○ 기타연장보육 관련 정보 확산

- 기타연장보육 이용이 필요하지만, 정보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양육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연장보육에 대한 정보 확산이 필요함. 제도 존재 여부를 포함해 운영 어린이집 위치, 운영 방식(운영시간, 비용, 프로그램 등)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정보 확산이 필요함.

→ 이용자 다양성을 고려하여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http://umppa.seoul.go.kr))와 주민센터에서의 안내, 인터넷 포털 검색 키워드 태그의 정기적 업데이트를 제안함.